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5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 창간 | 제326호

발행인 林光澤 · 편집인 孫一橫 | 편집주간 許 檀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 마포구 도화동 19-2
전화 702-2233 | 팩스 703-0755 | AFS 080-604-0011
참여 협력 영광 | www.snu.ac.kr



종합병원 평가, 모교 병원 1위

<관련기사 19면>

두 배로 넓어진 규장각

<관련기사 18면>

관악추수

서울대 60년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모교 동창회관 건립이 추진된다. 현재 쓰고 있는 서울 마포구 관악동소재 동창회관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지상 19층 지하 6층의 매너드회관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이듬하여 서울대동창회 장학빌딩, 물론 그 목격은 모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사랑스런 우리 후배들이 좀더 많은 장학금과 풍족한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건물이 완성되면 연간 20억원 이상의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근년 들어 은행금리가 과격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기금이자에 의존해 온 장학사업이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물파구로서 장학빌딩 건립에 의한 임대수익체제로 바뀐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거의 모든 서울대생들이 우리 동창회의 장학혜택권에 들어온다는 계산이다. 졸업생과 재학생을 잇는 끈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의 수준을 높이고 그러므로써 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흔히들 교육은 가장 고상한 투자라고 한다. 사람을 기르는 투자가이 때문이다. 너무나 국익을 키우는데 밑거름이 필요하

면 사람을 키우는 것도 값은 아끼워 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해주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한다. 많은 선배와 사회유지자들이 서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속의 서울대는 아직도 작고 밀거늘을 주지 않으면 더욱 작아질까란 점을 걱정할 때다. 그래서 우리 모교는 시급히 수혈을 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 헌혈의 대열에 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다행히도 동창회 건립기금의 상당부분은 이미 해결되었다. 함으로 다행한 일이다. 소요예산 3백억원 중 동창회기금 1백억원이 있고 林光澤회장에서 50억원, 洪性萬대우회장에서 1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거액을 출연키로 한 분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1백40억원이 우리 동문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흔하디 흔한 서울대인들이다. 특히 이런 일은 우리의 뜻을 이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서울대의 명예를 위할 동창회장을 키우는다는 숭고한 역사(役事)라는 점에서 동창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울 공덕동, 유유히 흐르는 한강변에 여의도를 비껴나면서 세워질 19층짜리 드넓은 서울대동창회 장학빌딩! 이것이 모교의 인재를 키우고 우리 서울대인들의 센터가 된다! 얼마나 흐

알림

2회 동문 바둑대회

5월 19일 (일) 모교서 개최

- ◇일 시: 2005년 5월 19일(일) 09:00~17:00
- ◇장 소: 서울대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
- ◇참가대상: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 (단, 아마 7급 이상)
- ◇개인전 출전자는 단제한 출전 불가
- ◇진 형: ① 단제한 (단과대별 좌초 5인)
② 개인전 (棋力 64급 이내): OB초와 YB초로 분리, 총 6명 (6명만 공개), 스웬스 리그
- ◇신 형: 2005년 5월 4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 양식 참조 (www.snu.ac.kr)
- ◇참가비: 없음. 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기 타: ① 프로그램: 초·최 기념 대국
② 참가참가자 및 관람자를 위한 경품 추첨 (노트북, 휴대폰 등)
- ◇연락처: 전화 02)702-2233 FAX 02)703-0755
-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俊, 金昌悅, 朴世熙, 林洞斗,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安炳泰,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模, 李慶龍, 金鍾勳, 金仁圭, 徐玉福, 李元愛, 高永才, 姜天錫, 嚴基泰, 朴時龍, 李京武, 朴聖姬, 朴勝俊, 金鎮錫, 편집장 安典燮, 편집부 기자 朴亨宇,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느리나무광장

김영장주 출범이후 한국성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세력들의 정계 진입과 포퓰리즘의 극대화 것이다. 노동당 당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사회단체와 운동권 출신들의 대거 등장은 긍정적인 반면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거가 종자기반인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 포퓰리즘적 성향을 갖는 것은 너무할 수는 없다. 19세기말 미국에서는 포퓰리스트들이 출현, 참신한 정책들을 앞세워 제3당의 입지를 굳힌 적이 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을 기존의 양대 정당 특히 민주당에서 대륙 빈이들이함으로써 명맥이 끊겼지만 그들은 가장 정치인들에게 신성한 충격을 주었고 20세기 사회개혁의 기초를 마련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한국정치의 포폴리즘은 어떤가. 이 같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적지 않은 폐해를 놓고 있는 게 문제다. 어야 모두 개혁이라는 시대흐름에 맞춰 특별기구까지

두고 있으나 새 정책의 청사진은 선거를 의식한 신심 경쟁이 고작이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론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기 일쑤하고 그때그때 대중심사에 열달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도 한둘이 아닌 형편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혼란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으로 새삼스러울 바 못된다. 새롭게 더욱 걱정되는 것은 말의 말을 낚는 비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현상이다. 특히 이데올로기

대통령의 말재주

洪性萬
前경향신문 사장
본보 논설위원



하의 비교한 이후까지 보충관수에 원상이고 있다는 지적이
다. 물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다질 것은 과
제야 없다. 그러도 한 때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타협 손익은 계산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정치권에선 떠오르는 인사들의 발음씨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김해간은 청치안에게 디타익선의 존재다. 자신의 신념을 널리 펼치고 때로는 불리한 여론을 비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호소력 있는 웅변이 꼭 깊은 국민적 감동을 주어야 하고 국론통합을 이끌어 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침피마' 언급 등 편가르기식 발언들은 후보자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한낱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집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씨처럼, 그는 오늘도 그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가' 앞으로 존댓말을 국가 지도자로서 오차를 줄여가는 데는 별관 거역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말 발음이 적은 장단도 쓰라고 하는 데 스스로 말 끝은 좀더 가사아 보 필요는 역시 없겠는가.

동문칼럼

아시아와 21세기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가 된다는
비전은 있었다. 여기에는 세계 제1의 경
제대국 일본이 있다. 본국의 자원을
국밖으로 세계 제1위의 경제규모를 달성
한 한국이, 거기다가 역사상 유례
가 없는 초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있다. 이 나라들이 협력해서 21년의 길을
찾는다면, 동북아시아는 복두부, 유럽연
맹 등과 더불어 21세기 세계의 3축을 이루
며 세계문화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가대는 해석하기도 어렵고 있다. 일본이 그 가대를 송두리째 알아 버리고 있다. 수장이 이누키신사(稲城神社)를 고집한다. 정일전쟁 당시 무키도리라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탈출한 조여보(釣魚島를 우리말로 부르는)라는 일본 땅이 아니라, 오게노야(小笠原)의 하마구 '센가구'의 날'을 제정했 하더니, 이번에는 러일전쟁 당시 한국의 약탈을 통해서 강력한 독도를 다계사(獨島)라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마네(島根)의 오노 하마구 '竹島의 날'을 제정했 했다. 지도를 안아들이는 한민족은 한국이 도음이 왔다는 뜻의 도음이 서술되어 떨어진다는

이! 일본인의 서석은 이렇겠는가. 그
파나 지금이나 언제든 동에서나 너무나
지 않는가. 왜 아시아 평화의 길을 막고
공멸의 길을 택하려 하는가. 이 나라가 이
런 마음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대하는 한,
북반아시아의 평화는 없을 것이다.

농복아시아가 이렇다면, 아시아의 시대는 열림 허시도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것이다. 과거 일련관계가 전장을 앞을 갔고 있을 때 아시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 지금 일부가 방황을 한다고 해서 아시아의 **선행**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인간이 외롭기**에 빠져 홀로 무엇 뿐이다. 동아시아 아시아를 리드하지 못 할 경우, **인생**이 아시아의 **진문**은 다른 나라를 넘어야 한다. 중국과 인도, 아 세아는 **새로운 아시아**는 **지구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 한국 사람들이
확고한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
는 밝다고 판단하는 본다. 내년에 의정각
내 A-SEAN의 FTA가 도입되면 말
효를 것이다 한다. 좋은 소식으로, 중국
의 장래를 우려하는 사람도 없다. 미국의
정보: 엄청난 통신망을 받아서 인민대
의 점장으로 중국을 나날에 무적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그 무질량적으로 이혼상
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무가 끊어져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믿지는
않다. 아무튼 것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
다. 어쨌든 통신망은 속속의 것이라



趙 淳
(상대전문부46-49)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민족문화추진회장

결정적인 장애는 되지 못할 것이다.

인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인도의 성장률은 기존도가 붙어서 앞으로는 연평균 6~7% 정도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난하지만 밝은 진전에 탄 나라를, 부유하지만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는 나라보다 더 낫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이제대를 형성된 세계양극의 국, 42%가 된다. 세상의 어떤 면이 발전에 있어 50%의 지위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모순된 주장, 그 一例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지축적으로 동쪽쪽을 향해서 성장했다. 오랜 세월 동안은 관습과 가난 때문에, 오늘날 서양 문화의 권위를 맞으려고 한 때도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된 편이 많았다. 최근의 한국·중국·일본의 경제가 바로 그러하다.

한국의 근대화의 초점의 역사가 어둡는 민족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양에 비해 민족스럽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역사적 사실을 생생히 되풀이할 인식이기는 생각 어느 한 면의 역사학이나 문제가 있다.

일찍이 서의 개화기 인식태도는 점차 국

후 일난은 歐美列強의 피해자로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지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침략(진출)과 전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과거시 인식태도로 인종
과거시가 분지가 논란이 될 때면, '다' 독
일'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배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일본은 비관하는 경유
가 있다. 최근 이러한 비판에 대해선 나온
일본 오부치 게이조와 후지이 후미의 공판
문구다. 독일에 있는 '다' 여행자를 통해
누구의 사람들로 노아 모든 해일을 그들
게 돌릴 수 있었으나 말에는 그러한 부
류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내
용이다.

그렇다간 왜 독일인들은 다른 부류의 사
람들이 저기를 범죄적 행위에 대응해 지금
도 회개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일본에는 과
치와 같은 부류가 없다고 한다. 朝鮮人의
본성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없다는 말
이 된다. 한편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부류가 잘못한 일 중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인 모두가 잘못된
일을 한 것이다”를 수 있다. 불행한 과거사
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피해국
임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사미라고 하는 국
가적 역사적 사실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
는 모순된 논리가 때문이다.

“나리나라 전통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고지조? 수심의 말만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나라 문화적 기질을 따져 보면 다르다. 보편적인 가치를 따져 보지 않는, 특별한 행동양식을 가진 이웃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다르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나라를 독일과 같아 행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행동양식을 냉정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동행동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유엔이 결코 상임이사국이 되기에겐 좀 더 시간이 걸려도 된다.



金 容 德
(시화63 67)
모교 국제대학원장
모교 일본연구소장

과의 긴전진 관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일종의 義理事를 어떻게 靑白으로 보는 입장에서 과거사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責任不在(회피)態와 같은 입장으로 있다. 궁정문화나 제왕문화론은 일본으로부터 피 해를 입은 朝鮮文化를부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때때로 격렬한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궁정문화는 이렇나 '自虐史觀'을 미화한다 과거의 명성을 강조하는 관습이며, 청일부하라는 '조선정체'의

장학발달건립위원회

‘간삼파트너스’ 조감도 조건부로 채택

모교 위상·서울대인 정체성 추가키로

본회 장학발달건립위원회(위원장 林光洙)는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임시집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장학발달 조감도 및 위면계획 향상안’을 당선작 선정을 위해 논의하고 ‘간삼파트너스’의 안을 ‘조건부 당선작’으로 채택했다.

‘조건부 당선작’이란 현재 제출되어 있는 조감도에 서울대의 위상과 서울대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여 5월 14일 전까지 3개의 시안을 제출, 본회 운영위원회 심의의 결정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보고 공대 건축학과 金聖均(건축64-68)교수는 심사문을 통해 “간삼파트너스의 안은 지층에 대한 리얼리즘, 고층에는 업무시설 등을 배치하고 내부의 고급화를 지향하여 임대수익을 최대한 확보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상세 면에서 준비를 많이 했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나만 서울대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성을 좀더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실적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용적률을 얻은 후 임대료를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날 소집위는 ‘간삼파트너스’의 안에 대해 현대적인 감각과 클래식 감각이 병행되어있고, 특히 1층이 균형감과 안정감이 있어 표현되도록 색도와 재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조위위원들은 동행회 사무실 배치, 스카이라이프 조성, 야간조명 등

여 관심이 많았고 장학발달을 상징하는 알파인 추가해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 조감도 및 설계도면 작성시 반드시 외관 평면을 장학발달(Scholarship B/D)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며, 상당시간 논의 끝에 ‘간삼파트너스’의 안을 조건부로 채택하기로 다시 3개 정도의 시안을 받기로 했다.

林光洙위원장(본회 회장)은 이날 제7차 회의를 보아 장학발달 건립에 반영되도록 지시했으며, “장학발달이라는 상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구조의 미감을 좀더 높여 빌딩의 수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위는 작년 10월 25일 열린 제4차 회에서 장학발달에 대한 중론들의 관심을 제고시키



고 모교의 위상에 걸맞은 일면을 얻기 위해 ‘조감도 및 위면계획 향상안’을 보고를 2004년 11월로부터 본회와 대학원에 계속 7로 결정된 바 있다.

장학발달 조감도 및 위면계획 향상안은 부지면적 1,713.1㎡, 건축면적 899.32㎡, 연면적 20,537.25㎡, 건폐율 52.3%, 지상 18층·지하 5층 규모로 건축 개요를 규정하고 용도지역을 전 등용 및 모교 재학생과 국내 외 건축실업사무소 주주지로 제한하여 공고했다. 당초 올해 1월 31일까지 용도 7'한을 정했었으나 이를 연장했다는 본론들의 요청이 있어 3월 31일까지 연장

한 결과, ‘간삼파트너스’의 ‘예측추진’기 종료로 바뀐다.

건립위는 추가 작업을 거친 ‘간삼파트너스’의 시안을 심의해 최종 장학발달 조감도 및 위면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간삼파트너스’는 서울 내치동 포스코센터, 모교 대학원 연구동, 포항대 마스터플랜, 경희대 종합강의동·호원관·관대 건물, 관동대 의대 건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캠퍼스 2호관 등 교육 연구시설 분아와 조형원 본점, 동국대학교 사육, 대한고원공예로 대안화관 등 기업 및 관광시설을 설계한 바 있다. (李)



故 崔主鎬 명예회장 1주기 추모골프서 애도의 마음 나눈

본회는 지난 4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덕수교회에서 본회 金在學 명예회장, 林光洙 회장, 관악골의 徐承範 회장 등 26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故 崔主鎬 명예회장 1주기 추모골프 겸 제129회 관악골프를 개최했다.

황년 90세의 나이로 2003년 12월 4일 별세한 故 崔主鎬 명예회장의 1주기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추모식에서 徐承範 회장은 “故 崔主鎬 회장께서는 평생 再枝不識 千累不如一, 즉 백 배가 기술도 한배의 지극한 정성인 못하고, 천지가 삼각도 한배의 행동만 못하다는 경언철칙으로 60년 대 국내 섬유업계를 선도했으며, 국민수백 명에 크게 공헌했다”고 말하고 “故 崔 회장의 건실한 삶과 여정과 신념적 노력이 오늘 날 모든 후배,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金在學 명예회장은 “해당 후 어떻게 서울 땅을 밟은 이후 한 평생 나무파사로 산란한 면적에

나무를 심고 산언화하는 사업을 펼쳤으며, 골프를 치더라도 나무에 관한 길이 있는 말씀을 하셨다”며 “故 崔主鎬 회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자”고 회고했다.

본회 10~14대 회장을 역임한 故 崔主鎬 명예회장은 1914년에 태어나 36년 전주농고, 39년 모교에 재입학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84년 전북에서 명예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55년부터 68년까지 한일남일은행 사장, 한국모교 회장을 지냈으며, 64년 경영인협회 이사, 65년 소모방면 이사장, 67년 계성제지 회장, 73년 섬유산업 회장, 76년 전 교리광명 사장, 78년 우성건설 회장, 80년 우성유통 회장, 81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부총재, 87년 우성산업 회장, 우성제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자일 중 허브 동행회관을 건립하는 데 10여만을 출연하는 등 동종호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

李鍾基 동문 장학금 1억 추가 출연



지난 4월 15일 상임부회장 李鍾基(경원69-73 관악회 이사)가 장(사진 좌)이 본회에 특기장학회를 기금

으로 1억원을 추가로 출연, 총 2억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 1999년 10월 1일 특기장학금 1억원을 출연한 李鍾基 특기장학회’를 설립한 주사장은 그동안 영·호남지역 고교출신 경영학과 및 경제학과 재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왔다.

이번 추가 출연은 지난해 4월 26일 작고한 모친 李淑(사친 좌)이 본회에 특기장학회에 1억원을 기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

李鍾基 장님이 특기장학금을 출연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사모의 글을 보내왔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어머니 계시지 않은 세계’

4월의 정령이 다시 이 땅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으나 한편 떠나신 어머니를 다시는 볼 길이 없다.

어머니 계시지 않은 세계 1년, 그 시간은 내게는 한을 수 있는 그리움과 무상함의 세월이 있다. 어머니를 떠나신 날은 내 앞에 웃고 계시으나 내 마음은 항상 안락하움에 젖어 어머니와 더 나누지 못한 아이들을 부질없이 파놓아하고 있었다. 한 번만이라도, 내 하루라도 더 뵈 수 있다면...

누에게나 어머니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우리 생애 가장 눈부신 추억은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들이었다. 그 추억들이 역사 속

으로 회귀할 때 우리가 감당할 아픔과 고통과 비탄은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한은 짐작도 하지 못할 영역일 것이다.

정성과 집념의 일생, 이제 어머니의 여사는 땅을 내렸고 남가신 유지만이 빛난다. 내 하루의 시간들을 감당하며 나는 그 분이 내게 가르치신 유지들을 회고하고 있다.

樂施報知 - 즐겁게 나누고 이웃과 화목하라. 어머니를 일생을 통하여 내게 樂施報知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목표를 정하고 무섭게 나아가는 그 일생의 일생 속이 이웃은 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대성이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벗지 못할 카리스마가 있었다.

이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지혜로 작은 사업을 꾸려가면서 나는 희망과 즐거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다른 한편으로 도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의 정성을 나누고 싶다.

으로, 오는 2학기부터 李鍾基李鍾基 특기장학회’ 명의로 관대 및 법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朴明潤 특기장학금 전달



한국청소연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사장(사진 좌)은 지난 4월 22일 모교 연건대교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보건대학원 梁秉敏(제70-76)원장, 보건경제학전공 金 皓(계성동계84-88)교수, 환경보건학과 李承載(도시공학86-90)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학년도 1학기 ‘朴明潤 특기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박동문은 식사과정을 밟고 있는 梁秉敏교수와 李承載교수에게 각각 50만원을 전달했다.

수학과 69학번 기금출연

지난 4월 22일 모교 수학과 69학번 출신인 尹振熙(한국과학기술원 교수)·金英花(이화여대 교수)·李承載(중앙대 교수)·李承載(한양대 교수)·李承載(한양대 교수)·李承載(한양대 교수) 등 1명 35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했다.

본회는 이 기금을 ‘수학과동창회’와 ‘특기장학회’으로 관리해 오는 8월에 열린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 수리과학과 재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表)



耳順테니스회

44회 정기대회서 老益壯 과시

耳順테니스회(회장 申東澈)는 지난 4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30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44회 정기대회를 개최했다.

경기결과 팔손조 馬勝錫(약학 45-48)·高炳鎭(사회교육 46-50) 동문, 이순A조 金潤澤(법학58졸)·李俊佑(체육교육61 63) 동문, 이순B조 朴南浩(회계53-57)·崔圭勇(경제53-57) 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팔손조 준우승: 全顯熙(도목 45-48)·李壽植(약학 46-49) 동문, 3위: 金應振(의학39졸)·金明煥(의학46 51) 동문, △이순A조 준우승: 李炳九(치의학53-57)·沈載錫(사회교육 56-60) 동문, 3위: 蔡正河(동물59-66)·蔡鶴奎(지구과학교육 65졸) 동문, △이순B조 준우승: 成旭基(경제 53-57)·朴仁編(체육교육 53-57) 동문, 3위: 金正澈(건축52-56)·崔熙澤(연세53졸) 동문.

학악대학

관악캠퍼스서 테니스실력 겨뤘

학악대학동문회(회장 李金器)는 지난 4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전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최종판 남씨 속에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A조 金龍阿(약학51-58)·鄭海錫(제약71-78) 동문, B조 殷慶植(농학40졸)·李秉奎(약학65 70) 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A조 李裕求(약학53

57)·李泰振(약학77-81) 동문과 B조 朴世進(약학82졸)·金熙坦(제약67-71) 동문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는 수상자 외 李壽植(약학46-49)·沈寶煥(약학52-56)·沈應基(약학54-58)·梁承龍(약학55-59)·李民植(약학55-59)·李基準(제약68-72)·姜昌律(제약73 77) 동문이 참석했다.



간호대학

俞淑子 회장 연임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淑子)는 지난 3월 16일 모교 연건각피스 7호대학 건물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俞淑子 회장이 연임됐으며, 부회장에 田義江서(64-68)·李貞子(65-69) 총무부장에 朴善희·李금란(70-74)·劉玉秀(71-75) 모교 병원 간호부장·成熙熙(72-76)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장·李麗淑(73-77) 모교 병원 간호부장·李光玉(75-79)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 등문을 선임했다. 감사에 金南蓮(33-36)·李正姬(61-65) 성균관대 임상심리대학원장) 등문, 심의이사에 金正熙(73-77) 모교 교수) 등문을 선출했다.

俞淑子 회장은 “젊은 부회장님과 함께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받아 중문 전문 사립뿐 아니라 재학생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미국 LA지부로부터 3만불 가급 약정을 이끌어 냈으며 만지회, 동생회비 제도도 통해 동창회 설립을 키우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총회에 10여 명의 친인척 회원이 참석해 찬바람보다 따뜻함과 축하의 박수를 받았으며, 尹順順(73졸) 부부는 대한간학회 차기 회장에 출마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올해 간호대학동창회는 ‘기 이사의 날’(9월)에 지부회장단을 초청, 특별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며 매년 주기로 열고 있는 ‘아유회 및 베타시장’(10월)을 치를 계획이다.

수원지부

俞東浦 회장 재선임



수원지부동창회(회장 俞東浦)는 지난 4월 8일 수원 관동로상 2층 상영사에서 동문 및 가족 50여

최고경영자과정

세 회장에 朴泳俊 동문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正熙)는 지난 4월 14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코리아리치치엔터 朴泳俊(행정64-68 AMP 35기·분회 부회장) 회장을(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지향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에서 모교 경영학과 鄭秀一(상학59-63)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돼 동문들의 축하를 받았다.

한편 조찬 상연회에서 모교 경영학과 尹炳熙(물리58-63) 교수가 ‘시크리프를 인식 및 관리’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모담에는 金正熙 회장을 비롯해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생활과학대학

鄭興淑 회장 선출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興淑)는 지난 4월 22일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중앙대 鄭興淑(가정교육59 63) 명예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회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2월 회교를 떠나 출가본한 기쁨에서 동창회를 위해 일한 수 있게 됐다”며 “부족하지만 성심과 다재 동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鄭興淑장은 MBC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82년부터 중앙대에서 교편을 잡아 생활과학대학 학장, 한남대학교 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ashion Painting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총회에 앞서 鄭興淑 전임 회장의 특별 장학금을 포함해 4명의 학장에게 장학금 4백 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모담에는 지난해 총회에서 불참했기로 의결된 대학원 가정학부에 동창회 호의를 보람,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상과대학

우수 졸업·논문 시상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烈)는 지난 3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2004학년도 최우수 졸업자 및 최우수 논문 시상식과 2005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최우수 졸업자로 경제학부 손성민 군과 경영학과 김지선 양이 선정됐으며, 경영학과 서준규 군이 ‘조직 문화 과정에서의 효율적 리더십과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 경제학부 한지영 군이 ‘경쟁과 고학에 따른 성취도의 역효과와 영향’이란 논문으로 최우수 졸업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어 장학금 전달식에서 각 과 지장학금을 출연한 동문들이 모교 경영학과·경제학과 학장상 40명에게 총 7천1백45만4천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희 회장과 10명의 특시장학금 출연자가 참석했다. (南)

- 바로 잡습니다 -

지난 321호(3월 15일자) 6면 치과대학 기사 중 ‘白承祖(치의학 53) 동문’을 ‘白承浩(치의학55-58) 동문’으로 정정합니다.

또 지난 325호(4월 15일자) 2면 ‘노니나무 광장’ 내용 가운데 ‘장박여당’이 정부와 국회의장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권력권력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정치는 조종을 끝까지 할 것이다’에서 ‘조공’을 ‘조공(罪過)’으로 바로 잡습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金芝希 作 “村郊(Village): II” 色鉛, 蠟燭, 商標防染, 182×118cm, 1981.

<작가약력>

- ▲76~80년 고려 미술 대학 미술과 졸업
- ▲80년 경희대 공예 석사학위
- ▲84년 서울대 미술대학에서 학사학위
- ▲85~86년 국립 미술연구소장, 조선미술
- ▲77~85년 가나 작가회
- ▲89년 아메리칸대학에서 미술사 학위

TV 출연

- ▲80년 제2회 전국노총기 대회 특영 공영
- ▲88년 유네스코 기념예찬 대상
- ▲82년 파리스 조각 미술대(파리)를 초대 전시회 1월, 파리지 미술관 및 유네스코(파리) 7월
- ▲현과 대우미술관에 참여(가나) 및 미술교육 및 전통공예를 다룬(가나) 전시회



식품·외식산업과정

마니산서 시산제 올려

식품·외식산업도전 최고경영자과정졸업자(회장 서광익)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마니산에서 6백여 동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뜻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 韓基永(3기), 張文男(4기) 전임회장, 朴東南(4기)회장, 朴崑均(7기)수석부회장을 비롯해 1기에서 16기까지 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역대 시산제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자원공학과

대 학원생에 장학금 전달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최근 모교 권익플러스 호암교 수호관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기 자원공대 마치고 순태적(13기) 동문이 주관하는 '장사관' 등재당 공장견학이 이어졌으며 옛교로성(대표 권태근 6기)에서 여흥을 즐기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후에 同會는 지난 3월 3일~4일 양일간 전북 무주리조트 비룡호일에서 안원위크숍을 열고 올 한 해 시산제회를 논의한 바 있다. 올해 식품외식산업과정 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는 특별로 회비를 발간할 예정이며 갈프대회(5월), 식음료계 견학(6월), 유별인사 초청세미나(9월), 체육대회 및 두드 퍼스트티(10월) 등의 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학원생 6명에게 장학금 1천2백 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런 장학금을 장성태이씨 尹友錫(63·67)회장이 1천만원, 모교 17교원(54학) 명예교수 24백만원 을 출연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환경대학원

金權泰장관 특강 펼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郭瑞禧)는 지난 4월 11일 서울 강남 메리엇호텔 컨퍼런스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보건복지부 金權泰(경재65~72)장관이 특별 연사로 초청돼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총회에서 회원유대 강화 등 위한 사업 및 동창회 공보사업, 모교 자원사업 등 2005년 사업계획을 위한 2천2백여 만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범대학

A·B조로 나뉘어 등산대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相國)는 지난 4월 17일 모교 권익플러스 교수회관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동문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A조와 B조로 나뉘어 A조는 모교 鄭維根(제대교수63·67)교수의 인솔로 권익산 언저리에서, B조는 李宰熙(물리교수67·71)교수의 인솔로 헬기장까지 등산하고 돌아왔다.

등산을 마친 동문들은 잔디밭에 모여 화창한 봄 날씨 속에서 즐거운 산소를 나누며 친목을 더했다.

ACAD동창회

사무실 개소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東俊)가 지난 3월 2일 지하철 8호선 동원토성역 인근에 동창회 사무실을 마련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4-3 현대토비스 빌딩 306호·문의 412-0083)



치대 15회

학술집담회 기념 행사

치과대학 15회 동기회(회장 李相國)는 지난 3월 26일 서울 명동 도알호텔 2층에서 李永工(41년 차) 명예교수를 비롯해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집담회 1백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李相國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술집담회가 1백회를 맞이한 것

은 15회 동기회의 패가이지 자랑"이라며 "역대 회장단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할 드린다"고 말했다.

치대 15회 동기회는 1961년 설립과 다달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논문, 필록, 뉴스 도입을 통해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졸업 20주년 기념발자에는 모교 치대박물관에 집담회를 증정했으며 30주년 행사에는 모교 치과병원에 조형물을 기증한 바 있다. (南)

만평

李元勳



“백화점식 종합대학 통폐합...경쟁력 제고해야”

문단을 찾아서 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金振杓(법학67·71)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정부 경제관료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재정경제부 세제심장은 거쳐 청와대 수석,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후 정체를 좁혀하는 부총리직인 재정경제부 장관까지 올랐다.

이런 金동문에게 교육부 수장자리를 맡길지를 더 기대보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교육문제 해결에 시동을 건 金동문을 만나 취임 3개월 소감, 학원식별 이야기, 후학들을 위한 조언 등을 들어보았다.

—취임 당시 교육부 수장자리에 경계 반응을 일컫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장관 취임 후 3개월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지난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노력, 학업성취도종합대책 수립, 인적자원강국 실현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당면한 교육관련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어렵게 일과 있었던 많은 것들을 분량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이 있습니다.

‘수·우·미·양·가·식’으로 표현한 ‘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우’ 정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익힌 비늘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장이 기반을 둔 정책집행으로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한다는 ‘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국립대 통폐합을 통해 50개 국립대를 35개로 줄인다는 인이 눈에 띕니다. 35만 숫자가 나온 구체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위주로 제시되고 보도되었으나 사실은 구조조정도 대학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학원인가가 급속히 줄고 있으며 대학교 지금까지 변화점식 종합대학으로 운영되던 반면에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대학경쟁력,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통폐합, 학제별 맞춤형, 나아가 지역과 대학 특성상 경쟁을 갖는 분야도 발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수를 35개로 감축한다는 내용(50개→35개, 15개 감축)은 현재 통폐합을 위해 임해각자를 제정된 대학(87), 통합논의 중인 대학(10여 개 내외)들을 감안해서 나온 숫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비범적인 대책은 무엇

대답: 본부 金振杓은법위원
(중앙일보 정치부장 대우)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하므로 가정과 학교, 관련기관, 사회 등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기관의 추진상황 평가, 법정부 차원의 연세제 개혁, 줄어든 학교생활 여건 마련, 학교의 자문봉사를 활용 등에 대한 지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상담과 대화를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에서는 학부모의 관심과 배려 및 학교와의 주기적인 정보교환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 유해환경 예방 등을 위한 사회기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중 연구중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명성보다는 수월성에 집중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7~8개의 연구중

고등교육평가원 세워 대학 개선 인문사회 교수 지원에 관심을

심대학을 선정,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육성해 대학이 국가인재발달과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중심대학은 정부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Pool, 연구자의 능력,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요건에 비추어 대학 스스로 결정하여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학의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요.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 05년 1월 발족)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진방향을 꾸리고, 선정기준 등을 마련 중이며, 관련 예산 지원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의 근간 목적이 Global Standard에 맞는 고급 전문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수월성’ 확보는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배출 인력이 사회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



그 정책’은 우수 대학을 육성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경쟁이 많이 완화되면 메시지가 높습니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우리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학평가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OECD 등의 국가들이 90년대 후반부터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질 관리 기구를 설립·운영(핀란드(FINHEEC, 1996), 영국(QAA, 1997), 호주(AUQA, 2001), 아일랜드(IUQA, 2003))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정부·대학 등으로부터 독립성·자율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 전문

기구(기초 고등교육평가원)를 2006년도에 설립할 예정이며, 국내외 고등교육 평가전문기관과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공신력 높은 고등교육 질 관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정관련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학원식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법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나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상대를 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아버님의 권유와 당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고 했던 법대에 대한 막연한 꿈이 법학을 전공하게 만들었죠. 입학 후 꽤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2학년 때는 학점 4.0대였고, 소문난 韓道直 교수님(법법총칙)과 劉基天 교수님(형법총칙)으로부터 A학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수인들은 학점이 2대여 떨어졌는데, 내 사람이거든 A학점이 붙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경제학에 대한 미련이 늘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3학년 고학년이었던 법대 교수님 때문에 일부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학 관련 도서를 많이 읽었고요. 당시 금서였던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의 책도 접할 수 있었죠. 2학년 때까지는 법학 공부를 했지만 이후로는 경제학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졸업 후에도 언론계로 진출해 현장에서 경제공부를 더 해왔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법학보다는 경제학에 관심이



당있죠.
—대학직접 연합동아리인 '코러스'에서 활동하셨는데, 이 동아리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코러스'는 수원출신 서울대, 연세대, 이화대 학생들이 연합동아리입니다. 일종의 향우회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고려대와 숙명여대까지 더해 5개 대학 연합동아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꽤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영벽'이란 잡지를 만들어 버트란트 러셀의 'The Conquest of Happiness(행복의 정복)'를 요약·번역해서 게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4학년 때는 코러스 주최로 '70년대 한국의 안보와 통일'이란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시화를 보고 주제 발표자는 당시 동아일보 黃憲吉씨지, 토론자는 모교 차태환교수, 중앙일보 총무장관신영원, 조선일보 朱鎭植씨였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이런 일을 도는 토론회를 종종 개최하곤 했습니니다.

—사회 첫 출발을 은행원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를 처음 봤어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다 신문사가 모집을 안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이후 늘 형편도 안되고 노는 게 제철이 맞지 않아 바로 은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신탁은행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모교 행정대학원에 들어가 고시를 다시 준비해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재무부 세제총괄실과 시절, 금융실명제에 발탁돼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공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에피소드를 들려주십시오.

당시 금융실명제 담당국장을 맡고 있었어요. 금융실명제가 사회에 미칠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준비과정부터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금융실명제발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시표를 제출하고 근무할 정보도 없었죠. 그런데 시표를 써야 할 정보도 안을 자기가 하나씩 예산을 짜서 작업실용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李鍾熙부총리, 洪範熙재무부 장관, 金鍾德재무부 세제실장, 저 이렇게 네 명이 5백만원의 각 줄에 따른 정부청사 주변에 아파트를 얻고 жили라고 빌려 비명직업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도 처음에는 외국출장이라고 돌려주고 갈로공판까지 보냈다가 다시 복귀시켰죠. 소문이 나면 안됐으니까요. 그 덕에 보안이 잘 유지된 가운데 금융실명제 인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니다.

—국정운영에 있어 김부총리만의 스타일을 꼽아보면... 직원들과는 어떠한 철칙과 철학으로 함께 일을 수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일든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상황을 미리 예측해 대처할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게 성실하게 대처합니다. 그것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란 직책은 그동안 성공한 집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운영을 하되보면 힘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스트레스 해소책과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그렇죠. 저의 경우 운동으로 따를 년 뒤 사귀었고 후자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으로는 자진히 타거나 걸기를 많이 해요. 정세균부총리 시절에 일해서 한시간 거리가 내려 워터파크 갔어요. 스트레스란 것이 머리가 무겁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일 처리를 미루지 않고 명확한 판단 하에 제 시간에 끝내는 것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량은 예전 같지 않아요. 공보관 시절에는 기자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매일 폭탄주 10잔쯤은 마셨죠. 그때 영향으로 아직도 এখন에 술 잠 마시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마셔요.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골프와 등산을 주로 합니다. 골프 핸디캡은 14점도되지요. 매일 새벽 주 주량은 저녁 9시 당원들과 등산을 합니다.

—선배를 비롯해 막역한 사교로 지내는

이사를 다닐 때마다 교회 열적이거나 뒷집이 있었거든요.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수원출신학교 학생회장을 할 때 한 종교모임에서 金孝煥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얼마 전 과학고 학생회장님이 자살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데, 교육부총리로서 심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 좌우명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이것을 논에서 보면 '현실'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자기입장과 처지를 비판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묻혀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니다. 재벌 집에도 있어왔고 유명 정치인 집에도 있어왔는데 모두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요. 남들이 보는 것과 자기가 느끼는 것은 정말 달라요.

가톨릭 교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

생은 가난해도 외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동문회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폐교론에 대해서는 인신해도 괜찮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서울대 못지 않은 좋은 대학이 훨씬,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입시지옥이 소수의 몇 개 대학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의 차별로 전 국민을 쫓아내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죠. 다양성의 기초 아래서 합리적인 경쟁을 해야 대학교 발전하게 됩니다.

대학에 최근 들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선택한력이 잘 돼 취업률이 높은 곳도 생기고 한때도 같이 좋은 지방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대 이전설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

겠지요. 그전 옛날 이야기지요. 이미 서울대를 제외한 많은 대학이 지방에 분교를 만들었고 지방에 서울대 못지 않은 좋은 국립대가 많이 있는데 이전의 필요성이 없죠.

—동창회에서 장학금사업을 건립해 장학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동창회에서 학생보다 교수님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 대출제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 최근 서울대생들의 경우 같은 거주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뒷날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의 공부할 여건은 좋아지는 반면, 교수들 특히 인사사회계열이나 신진학자들은 여건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BK21'제도를 통해 도와주려고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40대 신진 교수들은 집안의 가장으로 엄청난 짐을 안고 삽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도 장만해야 하는데 한달 벌여 한달 살기 비슷한 분량이 많아요.

학문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연구가 아주 중요하니까. 솔직히 나이가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연구가 안돼요. 요즘 점점 학문세가 젊어지니까 25세~40세 사이에 비록 공부하려는 경향이 강하는데 그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문제지요. 이런 분들을 동정회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니다. 그래야 우수한 사람들이 더 들어와 실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미치리코 후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대를 생각하면 늘 씁쓸합니다. 허지만 해설의 '청춘은 아름다워!'란 소문이 있죠? 젊이 있어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인생의 4년이라는 황금기를 정말 유쾌하게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파트타임 일을 통해 돈도 벌어야겠지요. 그 일을 경험하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교과이 소중할 시기'에 미루게 책 읽고 공부하고 토론했다 공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 것 같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를 확대한 것도 들어 구해받지 말고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동창회보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金南柱기자)



어려움 닦칠 때 신앙으로 극복 걷기·숙면으로 스트레스 해소

죽마오우를 소개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언급해 주실 만한 분이 없으신지요.

언급 안 된 친구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해요요? (모두 웃음)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장남과 아들, 딸 이렇게 다섯 자녀입니다.

—재수를 해서 법대에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험 실패 후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낙담해 있다가 신앙의 힘이 큰 역할을 하셨던데요. 부총리에게 신앙은 어떤 것인지요.

경복고 졸업 후 복직의 뜻에 따라 서울대 법학과를 지망했습니다. 시험 후 집사를 체크해 보니 '충분히 합격하겠다' 싶었는데,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시험이었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서해안 거문도에 쫓겨온 순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쳐들더군요. 회개하는 마음이 날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운명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것 같아요.

간에게 존 자유의지까지 고려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믿음을 통해 내가 믿어오. 절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니다. 사람은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스스로 대학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큰 아들이 과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간 여정을 생각하면 학과 시험 몇 번이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언제나 자신의 방법이 있고 제자부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동문의 한 분으로서 서울대 총동창회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년 전까지는 동창회 모임에 소출하다가 나이를 점점 먹어나가 친구들 생각이 나면서 동창회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허버나 데 같은 곳이 동창회가 생애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허버나 데 동창회의 경우 허버나 데 문관들 장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동문들에게 자료를 다 보내고 각 동문의 특성에 대해를 통틀고 1년에 한두 번씩은 회를 조차해 세계를 순회하면서 각국의 동문들을 만나 인맥도 넓힌다고요. 우리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의과대학 동창회장 河權益 회장
(우리들병원 명예원장)

“제 생의 마지막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 볼 작정입니다.”

지난 3월 30일 의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우리들병원 河權益(의학57-63) 명예회장의 취임 인사이다. 신임 河회장은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심어준 모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고맙고 기쁘다”며 “서울대 의대인의 숨어있는 자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년만에 새 회장직을 맡게 된 소감.

“경원자에서 빈타타라, 여성에서 남성, 미호에서 기혼, 미나에서 추남으로 변화도 수반됐지요. 동문들이 대단한 모험을 하신 것 같네요(웃음). 취임 회장님들에 비해 부족한 게 많습디다. 몸으로 부족함을 메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국의 91개 지부를 발로 뛰어 찾아다니겠습니다. 원로 회원과 젊은 동문과의 가교역할



조람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사상의학가인 李濟馬 선생과 같습니다. 이를 알고 그렇게 지은 것은 아닌데, 李濟馬선생 이름과 같아 호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이아 스포츠의학연명에서 받은 상급과 시비를 들어 ‘제마스포츠의학상’을 제정해 금년까지 여섯 번째 시상을 했습니다.”

—동문들에게 간담회 소개를.

“무순한 운동과 욕심을 버리는 게 최고 의 건강법이지요. 서는 민본기를 치고 다니



아남반도체 사장을 역임한 金載煥(산대원72-75) 동문이 최근 언론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金회장은 광고·홍보계통에서 40년 외길을 걸어온 국내 홍보계의 대부로 분류되는 인물로, 지난 4월 11일 집무실에서 만나 동창회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동창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작년부터 신문대학원동창회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동창회가 통합돼 지금에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언론정보대학원동창회장 金載煥 회장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있습니다.”

—오랫동안 홍보계통에서 일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1999년도 제46차 세계광고주대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였고 27개국에서 5백여 명의 유명 마케팅, 광고계 인사들이 참석해 국내 광고산업의 위상 제고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홍보효과 또한 컸습니다.”

—나보다도 젊어 보이시는데 비결이 있다면.

“공을 늘 상용합니다. 공은 받에서 나는 쇠고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영양도 좋지만 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노화방지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아 늘 가까이 두고 먹습니다. 소화가 거뉘어 불쾌하지 않게 적극 권해드립니다.”

“전국 91개 지부 찾아 나설 계획”

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는 동문들이 ‘동창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스포츠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1972년 성직병원 근무 시절, 부상당한 배구선수들을 치료하면서 ‘배구선수 부상’에 관한 예방 연구’란 논문을 썼어요. 그것을 계기로 배구협회 ‘팀 닥터’가 되고 스포츠의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1981년 대한스포츠의학회를 창립해서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을 지냈으며, 1988년 올림픽 때도 한 몫을 했지요.”

—이름이 濟馬인데.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저마는 제주도

며 하루 103천보쯤 꼭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부족하면 미리 내려 걸어가고 그것도 안 되면 정안에서도 걷습니다. 나이는 문들에게 걸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河회장은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74년 모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91년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96년 삼성서울병원 2·3대 병원장, 2004년 을지대학교병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병원 컨설팅업체인 ‘알투스’ 회장과 서울 청담동 우리들병원 명예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2005년도 세계 1백대 보건의료전문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가족으로 부인과 사이에 2남1녀를 두었다.

“애경사 쟁겨 소속감 심어주겠다”

이르고 있습니다. 신문대학원 출신 2백여 명을 포함해 총 6백여 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바원 출신 동문과 상대적으로 젊은 언론정보학과 동문들간의 조화를 이루는 게 과제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동문 대부분이 언론계나 학계에서 일하는 봉급 생활자라서 재정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 모임이 자주 갖기도 힘들고요. 우선 동문들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동창회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줄 생각입니다. 저부터 작은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참해도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최근 홈페이지(www.snucomm.or.kr)를 개설해 온라인 상에서의 활발한 소통도 기대하고

—회보를 위한 조한 일입니다.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좀 더 분발해서 다른 매체에 소개되지 않는 동문들의 활약상을 실어주고 재학생과 동문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金회장은 대전 문교고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롯데그룹 홍보실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아남반도체 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후학양성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가족으로 부인과 사이에 외아들(5월 26일 결혼예정)을 두었다.

(南)

GLP동창회 辛東烈회장 (GLP 3기 상문전자 회장)

"GLP과정은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한국을 이끌고 나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1999년 11월 국제대학원과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동 과정입니다. 동창회는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8월에 설립했는데, 현재 회원수가 약 5백 명에 달하며, 저명인사 초청 강연과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교 동문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갖춰야 할 점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경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오늘날에 글로벌 리더십은 이제 조직의 리더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됐어요."

글로벌 리더십이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해 사회 현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 및 조직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에티켓과 외국어 구사력이 요구되며, 그 위에 전략적 사고와 정보활용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GLP과정은 바로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영하고 계신 상문전자 소개.

를.

"경영자문위 세워 컨설팅 무료 제공"

"상문전자(www.smec-korea.co.kr)는 전자산업의 핵심부품인 필름관련서용 금속증착필름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되어 1990년에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했으며,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국내외 전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문전자는 큰 형님(辛東烈—체육교육4·58 본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동생과 함께 사업

해오던 것을 부분별로 나눠 재가 운영하게 된 회사이고, 형님은 상문통신산업 회장을 맡고 계시며 동생은 단말기 배터리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남달리 활성화돼 있는데 비결은.

"저는 GLP과정을 다른 단기과정과 차별화하기 위해 동창회의 활성화에 주력한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말에 전문위원 17분을 모시고 출범한 GLP경영자문위원회를 통해 동문들에게 법률·회계·금융·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1기 동문인 우리는 黃永基(무역71·75)회장과 8기 동문인 STX그룹 姜德壽회장에 제1회 GLP 동문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탁월한 경영성과를 낸 GLP 동문들을 선정해 동문대상을 수여하고 그 업적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명인사 초청강연(연 2회)과 갈매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학외 등 각종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추진할 것입니다."

본회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메세일룸에서 동창회 제1회차-관악회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과대학 부설 건설산업 최고관리과정(ACPMP), IT행정산업과정(IP)과 국제대학원 부설 '글로벌리더십과정(GLP)'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다.

새롭게 임종민 각 회장 동창회 회장을 만나 동창회 소개와 활동 등에 대해 물어본다.

산업 동창회장 인터뷰

ACPMP동창회 金在淵회장 (ACPMP 1기 새동건설 대표)

"우리 과정은 공과대학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업계 임원 및 오너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 한국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건설산업 비전과 경쟁력 향상에 노력"

—현재 개최하고 있는 토론회의 성과에 대해 한 말씀.

"직면한 건설 현황과 미래의 건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배들이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인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전략 경영 체계, 건설업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건설분야 임원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 팔 뚝이는 노동자의 얼굴을 보고 마냥 멋있었던 때가 이 분아를 전권하게 됐는데 막상 쭈어 보니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동건설은 2년 정도 후에 상장을 하고 저는 경영일선에서 2년으로 물러나 전문 CEO에게 경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저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 회사를 사회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 꿈입니다."

—평소 생활 신조로 삼고 계신 가르침이 있다면.

"저는 제 두 아들에게 평소엔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 때문 아 아이들은 방학기간동안 우리 건설 현장에서 먼출려 노동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서 쓰도록 하고 있으며 큰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평소 가르침대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유학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특별한 비결은 없지만 건강은 자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사업도 어려운 법이죠. 다만 바쁘게 사는 것이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할까요. 일을 즐기면 편합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것이 일에 대한 능력이 오를거죠. 직원들에게도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동창회장 인터뷰

IIP동창회 金榮元회장 (IIP 1기 전북대 기계설계학과 교수)

정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IT 기술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산업 육성은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성책이 우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자금이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회원사 5개 넘어"

—동창회와 동문 기업에 대해 소개.

"IIP동창회는 출범한지 얼마 안됐지만 그 어느 동창회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4기까지 2백여 명의 회원이 확보돼 있고 매달 골프대회와 등산대회, 동문 기업탐방 등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는 금강산 등반대회를 개최했으며 가을에는 중국 상하이 초청으로 삼삼사를 방문해 IT 기술의 정기적인 교류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IT 기술분야의 CEO로 구성된 우리 나라 IT 산업 발전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재학 및 수료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동문의 회사 수가 5개에 이르며 金大淵(IIP 3기)동문이 한국정보산업협회 회장에 선임됐고, 작년에 申在憲(IIP 2기 픽스트라 대표)·서준길(IIP 4기 인텔리스 대표)동문이 '올해의 정보통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벤처산업을 다시 육성키로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부진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오직 기술, 그 중에서도 IT 기술만이 경

—오랫동안 자동차 개발에 열정을 쏟아 오셨는데 애드레스가 있다면.

"저는 1967년에 모교 공대 공업교육과를 졸업하고 현대차에 입사해 지난 32년간 몸담으면서 최초 고유모델인 '포니'부터 '에쿠스'까지 전 차종을 개발해왔죠. 그런데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우리 나라에 캐뎃 문화가 없었던 20~30년 전 초창기 수출을 차장에서 실내 요일문제가 지금도 생각나곤 합니다. 완성차를 선착하기 전 어찌나 깨끗하게 닦아서 보내드렸는지 실내 요일 문은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협력업체의 부품 Handing 과정이나 자재가 조립시 전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청소할 필요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평소 즐겨하시는 운동이 있다면.

"저는 골프를 개인적으로 무척 즐기고 틈나는 대로 등산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당시 현대자동차 鄭圭永회장이 정책적으로 골프를 권장했기 때문에 일찍 골프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정말 많이 웃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李)

동문기자 회례수첩

19년 만에 다시 찾은 독도

하.

지난 4월 4일 독도에 다녀왔다. 아니 정확히 말해 독도 앞바다까지 다녀왔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상봉호가 독도 접근을 시도했지만 독도는 쉽게 물사탕들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일본 고위 관리들의 망연이 있을 때마다 육지 사람들은 독도를 지켜야 한다, 독도를 사랑하자고 외친다. 평소엔 참 하라는 뜻일까?

우리 국토의 미래, 독도는 쉽게 절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1년에 여객선이 독도에 접근 할 수 있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으니 그리 실망할 일도 아니다. 사실 독도 정류이 1분에 머지않아 가능하지에 대해 공식 불씨는 없다. 어떤 언론사는 1년에 40일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언론사는 80일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해양경찰청은 1년에 1백40일 정도 여객선이 독도로 항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독도에 일본인의 일도가 허용된 이후 4월 4일까지 관광객을 실은 배가 독도에 닿은 것은 단 두 차례. 그만큼 독도 앞바다에서 풍도와 시도의 정란만 조망하고 배머리를 둘러다만 했던 관광이 더 많다는 얘기다.

들.

한국의 대표 시인 1백여 명이 지난 4월

4일 독도 앞바다에서 '독도사랑' 예술작품 경연했다. 동해 물왕이 시인들의 시를 시 해설사일까? 4월 3일 포항에서 시인들을 태우고 울릉도로 향하던 여객선은 4미터에 이르는 높은 파도를 끝내 뚫지 못하고 함께 3시간 만에 포항으로 회항해야 했다. 이튿날 오전 다시 장도에 나선 시인들은 울릉도를 거쳐 독도까지 모두 7시간 뱃길을 헤쳐 왔다. 끝내 열리지 않은 독도의 문턱에서 시인들은 신상 예술제를 열었다. 그 온 시인은 미리 준비한詩 대신 즉흥시를 낭송했다.

“네 이름을 부르러 왔다. 네 이름을 불러 세상 가득히 너의 전언을 전하려 왔다.”

시인은 독도를 보면서 용솟음치는 문과적 상상력을 그대로 순화시킨 미묘함에 도착했다. 독도사랑 시낭송 예술제는 그날저 30분만에 막으로 치러졌다. 시인들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갈매기들이나 시인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냈.

19년 전, 1986년 4월 대학교 4학년 때 정치학에 독도를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날 남들처럼 제주도 같은 관광지로 돌아왔

을 갈 수 없다는 명분은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5공화국 당시 일본인들의 독도 인도는 없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는 몇몇 선배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독도경비대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



禹長均

(정치83-87)

YTN 문화과학부 차장

정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독도에 들어간다. 화산선 독도에선 먹을거리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해공에서 李九次선생님을 지도 교수로 모시고 독도로 향하는 해경 경비함정에 올랐다. 대형화 장악한 뒤 4월의 동해 바다를 장악한 호수 같았다. 경비정에서 육상으로 옮겨 탄 우리는 무사히

독도에 오를 수 있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기념품을 독도경비대원들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한 뒤 다시 경비함정을 타고 울릉도로 돌아왔다.

넷.

1980년대 초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다. 정광대 씨가 그의 유일한 히트 곡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때가 1983년. 5공화국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짐작할 수 없지만 '독도는 우리 땅'은 방송에서 상당기간 들을 수 없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독도문제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를 벌인 것은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10년 불황에 공증거리던 일본이 이제 좀 나아졌는지 또 다시 군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를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는 역사적·실질적으로 우리 땅이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다지는 차원에서라도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독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땅 독도를 누앞에 두고 함흥 참외보지 못하고 그냥 뜯어오는 것보다 안타까운 여정이 있을 수 있을까?

동문기자 회례수첩

밀거래로 훼손된 북한 문화재

2005년 3월 6일 오후 6시, 중국 단둥으로 향하는 1만여명 통근의 혼란원주호가 미러리지도 인정한 부두를 떠났다. 보따리상들과 조선족들로 떠들썩한 배 안과 울라 배가 떨어지기 직전의 아득이듯한 해 바다는 힘이 없어 보였다.

묘한 감정에 빠졌다. 일종의 두려움 같은. 북한에서 밀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일본으로, 제3국으로 반출되는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낯선 사람들 속에 끼어든 것이다.

“로보트 형자 수십 점이 한국에 들어왔다.” “식량난에 박물관 문화재까지 다 팔린다.” “개성 한때가 도굴로 속대발” 됐다. 서울 인사동과 장안동 일대에서 북한 문화재 밀거래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 어떤 통로로 거래되고 있는지 실상은 배면 속에 갇혀 있었다.

선배들과 함께 신문을 숨긴 채 진행됐던 007작전 같은 취재. 주요 거장들을 직접 만나고, 밀반출과 거래 무트를 꼼꼼히 짚어 가는 길에서 끈기를 해낸 것이라 든듯 지난 첫날부터 쉽지 않았다.

보따리 속에 한여섯이 팔지 못한 문화재를 챙겨 넣고 단둥을 향하는 낚시꾼 상인들이 여객터미널을 살피기 뒤흔들던 첫

수고, 보따리 장사들에게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여행 온 내색을 가장해 배 안을 훑어지던 소동이 없었다.

15시간의 밤을 꼬박 지낸 여정. 뱃길로 탈진 직전 상해에서 단둥에 도착했다. 압록강과 두만강 물결기를 따라 단둥과 통진, 두만 강에서의 일무예 현장과 선양, 연지, 네이징 등 북한 문화재가 팔려 다니는 거래 시장까지, 11일간의 장도에서 활약한 도굴과 밀거래로 훼손된 북한 문화재는 남북 분단의 또 다른 희생물이었다. 역사의 흔과 선조의 얼이 깃든 '우리 문화재'는 개성의 무덤에서, 외주의 사원에서, 평양의 박물관에서, 그리고 평壤만 가정집에서 아무렇게나 파헤쳐져 이국 땅을 헤매고 있었다.

회귀를 꾀하기 위해 전단 배고 장난 빼앗겼지만 들어 파는 인민들. “조선중앙박물관과 개성박물관 창고에 좋은 골동품이 산적해 있으니 알아든지 사가라”며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고위관리들... 중국 현지의 한국 상인들은 중국 골동품 중개 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모두 중국 상인들에게 빼앗긴 채 패배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두려움이나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한 노가쟁이가 시작됐다.

연령과 그형지에 놓인 골짜기 앞에서는

골동품에 얼굴을 찡그릴 때 “우리의 옛 것이 예쁘게 보일 때, 그 때가 칠 때다” 라던 아버지의 말씀. 그 옛 것들이 예쁘게 보일 겨를도 없이 안쓰럽고 측은하게만 느껴지는 속앓이는 출장에서 돌아와서도 가실 수가 없었다.

한국 골동품 상인들은 보도를 맞았다. 수교 개가 막대한 북한동조와 불경기로 시름하는 남한 골동품상인들의 발길이 끊어진다.는 논리였다. 왜 '우리들의 문화재'를



徐智賢

(외교98-03)

국민일보 기획취재부 기자

한민족끼리 물에 들어와서 물레 팔아야 하나. 우리 문화재가 중국을 거쳐 일본, 유럽으로 남몰래 팔려 나가는 것도 속상한데, 넘쳐나는 가짜 골동품 때문에 국제시장에서는 자칫 중국 골동품의 이유로 전락

할 처지에 놓였다.

서로만 고민이 시작됐다. 팔려 나가는 북한 문화재의 주요 거점과 경로, 거래 가격과 역사, 거장들에 대한 상세한 취재 내용을 모두 쓰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발길이 위태로워질 텐데, 시련조 기사가 두 차례 나간 뒤 인사동 상인들로부터 “중국 국경 경계가 강화돼 골동품이 단 한 점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었다.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또 다른 상처. 당장 지금은 아픔이라도 우리 역사의 이름은 면할지 기록해야 한다. 냉정해져야 한다.

두 달간의 국내 취재, 압록강의 해외 취재, 한민족의 보도. 지난 3개월간 선배들과의 밀착 취재기간 초기엔 혼란했다. 우리 문화재가 이렇게 비려지고, 훼손되도록 방치되고, 되거나, 북한강국이나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건가. 회가났다. 그러나 기자는, 객관적 관찰자다. 어찌도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3년차 새내기 기자.

‘기자가 되고 싶었다’가 아니라,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 지난 3년 야간은 두터운 그 첫 마음은 신기하게도 지난 식량난 반전을 성취해 역사와 민족, 기자의 입문과 대해 고민을 하는 사이 조금씩 퇴색한 것 같다. 나의 북한 문화재 밀거래 취재는 안타까움을 남긴 자..

화제의 인물

피아노 치는 박智榮 변호사

임파선암 극복...대학서 음악 강의

임파선암을 극복하고 음악과 법대를 졸업해 피아노 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본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위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박智榮(작곡가본91·95, 법학96·01)동본. 최근 '피아노 치는 변호사, next(말에 쓰신 글씨)'란 자서전을 내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동본을 시초봉 한시문화공간 다해원에서 만났다.

박동본은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를 진학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가정형편상 제대로 된 레슨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서울예술고 시절 내신 1등급, 피아노과 전체 2등의 실기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다 19세 때 임파선암에 걸리면서 건반을 놓게 됐다.

"반세도록 병원 밖에 누워서 뚫어대면서 다들 물어다려 주어야 할지 모르는 고통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더라고요. 내 인생의 열차가 멈춘다 해도 적어도 내가 선택해서 해야 할 일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항암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감사하게도 약세도의 위험과 항암제의 부작용으로부터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체력이 안 돼 피아노를 다시 치는 것은 어려웠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모교 육대 작곡학과. 피아노를 안 치니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많았고, 1년간 손에서 놓았던 공부인데도 '3학년 스캔지가 볼품 없어지다' '한번 들은 것은 잊혀지지 않았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길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陳時敏(대표 조병호)이란 봉사단체를 알게 됐다. '한정된 삶, 한정된 시간을 정하여 봉사하고 섬기자'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 가슴이 뛰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 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려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음악을 졸업하고 陳時敏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던 중 조병호 대표로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권유받았다.

'아름다운 사랑을 공중에서 구를 타고 다니며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결국 세상을 향한 집안은 수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기가에 미치자 비로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전국의 대학이 고시생 양천소가 된다더니 급기야는 음대생까지 뛰어들었구나"하며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하여 2001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박동본은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소송업무, 기업자문을 맡고 있으며 동아방송대학에서 음악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무병생활로 인해 조금 돌아서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버거나 방황을 위한 방황을 하며 휘청거리는 일은 생략하고 지나갔으니까요." 박동본은 아직 미혼이며 가족 가운데 부친 박智賢(금속94출)씨와 언니 박智榮(성악90·94)씨가 농민이다.



Noblesse Oblige

신앙문화재단 鄭智圭이사장

"모교 지원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남다른 애교심을 발휘하며 지난 1998년부터 55억원을 모교 지원사업에 투자해 온 신앙문화재단 鄭智圭(회장48·52 관악회 이사)이사장. 지난 연말에는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모교에 도서관(신앙학술정보관)을 건립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학연구기금' 11억원과 '정보문화학술연구기금' 10억원으로 10억원

을 기부해 모교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鄭동문은 모교 지원사업 외에 펼치고 있는 장학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신앙문화재단을 통해 2004년 말까지 2억4천여 명의 학생에게 4억3천6백만원의 장학금과 대학 및 학회에 12억원의 학술연구비를 지급했으며 '모교 공과대학 이공계 꿈나무 장학금'으로 매년 2천4백만원, 분화 복지장학금(2억원)으로 매학기 3



2년, 화학공학과 4년, 화공과 석사과정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공부하며 자연스레 깨닫게 됐다.

모교에 도서관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것은 1999년 분화 회장단의 일원으로 재미동창회 순방여행에 참가, 미국 하버드대와 MIT대학을 둘러보고 난 직후였다. 鄭동문은 "하버드 대학에만 약 1백개의 도서관이 있고 삼당수가 동문 기부금에 의해 건립됐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도 사학가 대학에 관심을 갖고 자부자재에만 학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버드의 기금 보유액 19조원, 예원대 12조원, 국내 모 사립대 1조원 규모에 비해 서울대 발전기금은 1천5백억원에 불과하다. 鄭동문은 "30여명의 동문을 비롯한 대학으로서의 조금 부끄러운 수치"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계 대학으로 커 나가기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보다는 도

모교에 도서관 등 55억원 기부

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고무학회와 한국보타리 장학문화재단에 각각 1억7천만원, 3억5천만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대해 鄭동문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제식민시대와 6·25전쟁을 겪는 등 어렵게 청소년, 대학시절을 보내며 가정환경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공과대학 교동부

서관 등 연구시설이나 교수에 대한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산 쪽에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한 것이니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鄭동문은 67년 태성고무화학을 설립해 31년간 경영한 뒤 은퇴했으며, 95년부터 3년간 공과대학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南)

서울대 가족 姜亨龍 강내과의원 원장

두 사위·장남도 국내외 의료분야서 활약

“일요일엔 3대가 모여 음악으로 하나됩니다”

서울 을지로 동대문문화장을 조금 지나 몇 안 되는 낮은 건물들 사이에 '강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건 지그재강 건물이 보인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주변과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고풍(?)스럽다. 현대적인 건물과 최신 장비를 갖춘 병원들이 속속 자리잡고 있는 요즘, '강내과의원'은 1966년부터 지금까지 증축이나 이전도 하지 않은 '천년기념물'로 40년 세월을 환자들과 함께 뚝고봉락해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장인 姜亨龍(의학44·48 대한소화기학회 상임고문)동문이 여든 하기도 중반을 바라보는 은의원이라는 점이다.

가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몸이 아파서 자리에 누운 보슬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해온 姜동문의 강직하고 人情 많은 생활 때문이었을까. 64년 남 중 장남이자 막내인 姜大熙(의학81·87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동문, 첫째 사위 李崇公(의학63·69 美산아암병원 방사선과 과장)동문과 첫 손자 李奎哲(美산문트사이나이대 안과 교수)세 그리고 둘째 사위 李明哲(의학67·73 모교 의학교실 교수)동문이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 유망한 공학도인 셋째 사위 姜賢煥(건축70·74 前국통건설 근무)동문은 역시 중증지역의 브레비랑과 싸우며 건설현장을 시찰한 장인한 정신의 소유자다.

반면 姜亨龍동문의 부인 李明姬(의학67·74 피바디음대 졸업)동문과 며느리 曹貞熙(의학79·83 프리랜서 작곡가)동문은 고등학교 때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姜大熙동문은 학생시절부



뒷줄 좌로부터 두 번째 姜恩秀, 네 명 건너 姜大熙, 누 명 건너 姜賢煥·姜恩熙·李明哲, 맨 앞 李奎公동문, 앞줄 좌로부터 네 번째 姜亨龍동문

터 드림실력을 연마했으며 李崇公동문은 교회 합창단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다.

“大熙에게 의사의 길을 권유한 것도 아니고, 가족 중 음악에 정밀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두 분야가 서브 조합을 짤 이루고 있어요. 사실 음악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야외회를 갈 때면 저는 공연의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옆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재잘대며 노래를 불렀죠. 뜬이 있는 집에서 살면 사람엔 여유가 이런 건데 위에 못지나리를 먹고 저녁을 먹거나 가든파티를 열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훌쩍 나와 온 가족이 노래를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姜亨龍동문 가족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姜동문의 가족이 된 여섯 사위가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요일은 손자들까지 같은 교회에서 예배한 후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는 게 하나의 코스가 돼버렸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손자들만 데

부병원장 시절엔 낙후해 있던 병원에 의료 장비를 강화하고, 학술집담회를 개최하며 무의촌 무료진료·계몽사업 등을 펼쳐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공헌하기도 했다.

한편 姜동문은 의학도로서는 드물게 서예 수련과 강강, 화랑·음악화·연극·무용관람 등 예술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며 오랫동안 문인들의 모임인 '목요호' 회원으로 친목을 다지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姜亨龍동문이 국내 의료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던 가족 중 나머지 외대 출신 동문들은 해외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학생시절 사생대회, TV퀴즈프로그램, 스키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여온 장남 姜大熙동문은 현재 미국립보건원 수석연구원, 유방암분야 권위자인 'Breast Cancer Research'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2004 미국암학회 총회에서 사모를 맡는 등 각종 학술대회 연사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같은 의과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둘째 사위 李明哲동문 역시 세계의학회의장으로 활약하며 1년 중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미국 병원에서 방사선팀 책임자로 있는 첫째 사위 姜賢煥동문은 무엇보다 이제 동서들과 끈끈한 우애를 유지하며, 그 자녀들간에도 우애 있게 자녀도록 든든한 만사위 역할을 해왔다.

현재 독일 브레멘에서 작곡분야 박사학위를 준비중인 막내 姜恩秀동문은 10여 년간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 불혹의 나이에 프리랜서로 변신하며 인악태작곡상, 한국음악협회 작곡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姜亨龍동문의古株 기념집에 게재된 '梅皇송'을 작곡하기도 했다.

“자랑까지는 오직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꿈이나 목표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조금 한가한 오후에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큰사위가 둘째 사위와 잘 지내고, 또 둘째 사위가 셋째 사위와 잘 지내는 등 그것이 애로 전제해 보니 화목하게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요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表)

姜亨龍동문의 서울대 가족

사 위

李崇公(의학63-69)

李明哲(의학67-73)

姜賢煥(건축70-74)

차 녀

姜惠夢(기약70-74)

목 녀

姜恩秀(작곡79-83)

장 남

姜大熙(의학81-87)

리고 호곡집에서 단합을 도모하고, 마지막 뒤를이는 역시 노래방에서 이루어진다고, 모교 병원 외과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해온 姜亨龍동문은 그동안 서울시립남부병원장, 영등포병원장, 대한내과학회 서울지부장, 대한소화기학회 등을 역임했다. 남

모교 소식

鄭雲燦총장 해외명문대 방문 공동 학술·연구 교류협정 맺어

모교 鄭雲燦총장(사진)은 지난 4월 4~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체코기술대, 카프린스틴대 등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협정을 맺었다.

鄭총장의 이번 방문은 모교가 그동안 역점을 둔 학술교류 확대 방안으로, 이번 협정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및 분야에서 공동 학술·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기간 중 鄭총장은 비엔나대에서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 기념 축사를 하고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으며 체코기술대와의 교류 승인을 협의했다. 체코 기술대에서는 '3+2' 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서울대학교의 경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또한 미국 프린스턴대를 방문, 국내 처음으로 이 대학과 '카운터파트 프로그램'을 맺고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한쪽 대학에서만 교환학생 희망자가 있다



리도 상대 대학에서 이들을 받아 주고, 학생을 받는 대학에서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기로 하는 조건이다.

기존 '1 대 1 학생 맞춤형 방식'은 해외대학에서 국내 수학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교환 학생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 또 유학생을 유치하는 학생이 원래 소속 대학에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내고 상대 대학으로 유학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외 학생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국내로 유학 오는 것을 꺼렸다.

모교는 현재 세계 일류대학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미국 아이비리그 3개 대학과 학술교류를 추진 중이다.



규장각

충청 개관기념 학술대회 열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국보급 고서와 고본서, 고지도 등 26만여 점의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모교 규장각(관장 宋基中)이 지난 4월 22일 鄭雲燦

총장 등 학내의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 개관식을 개최했다. 공민부족 문제를 호소하던 규장각은 2003년 5월 정부예산 1백10

억원을 받아 중구공사를 시작, 최근 준공을 마쳐서 기존 건물(연면적 4천77㎡) 일쪽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잇대 증축해 총면적(9천5백67㎡)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규장각은 이날 화성열행차도 등 회고 고서와 임무를 일반에 공개하고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등 중구 개관을 기념했다.

宋基中(국문61-65 국어국문학과 교수)관장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고전지식을 자손 만대까지 전해지도록 잘 보존하는 것과 이를 연구해 일반에 널리 알리는 것이 규장각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보존 부서에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교 도서관장과 규장각 도서관리실장을 역임한 朴泰謙(법학50-55) 명예교수는 기념 축사를 통해 "소중한 역사적 자료들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규장각에 교수급 연구자를 배치하고 전문 사서직을 양성해 단순히 고서를 보관하는 장소에서 그치지 말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명과학부 白盛喜교수팀

암 전이 억제 기능 세계 첫 규명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白盛喜(식물영양 90-94 사진)교수팀은 암 전이를 막는 유전자의 기능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 지난 4월 14일 세계적 과학저널인 영국의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이 때까 암 전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암의 발생과 단계에서 신체의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암이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연구결과로 白교수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몸 속에 있는 'KAI1' 유전자와 'Tip60' 및 '베라카세인'이라는 두 개의 단백질과 자기 작용함으로써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암 전이는 암세포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다른 장기로 암을 퍼뜨리는 현상으로, 수술로 암이 발생한 부위를 제거해도 다른 장기에서 다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암 치료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명원 약이기는 암의 가지 막 주요 단계인 암 전이는 세포 부착과 이동, 혈관 생성, 유전자 전사, 세포분열 전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암 전이 과정을 막는

억제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몇 차례 보고는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진행된 연구에 불구하고 실제 이번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비밀에 쌓여 있었다.

白교수팀은 'KAI1'이라는 유전자가 정상조직에서는 발현된 단백질을 만들지만 전이 단계기 유전자는 발현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에 착안해, 'KAI1' 유전자가 암 전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전이 단계 '전립선암 세포주(LNCaP)'와 여기에 'KAI1' 유전자가 없는 '세포주'를 넣은 뒤 '세포주(LNCaP)'를 만들어 각각 쥐에 주사했다.

그 결과 'KAI1' 유전자가 들어간 세포주를 투여한 쥐는 'KAI1' 유전자가 없는 '세포주'를 넣은 쥐에 비해 암세포가 폐로 전이되는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白교수는 "암 연구에서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암 전이를 막는 유전

자의 조절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라며 "모든 암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암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표적을 찾아내는 의미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白교수는 2003년 말 모교에 부임한 젊은 여성과학자로 그동안 '섬', '뉴런',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등 세계적 과학저널에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자연과학대학

해의석학 초청 평가실시

자연과학대학(학장 吳世正)은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세계적 석학 초청해 전공별 종합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5월 중 물리학·화학·지구과학·생명과학 등 5개 학문에 대해 분야별로 2~5명의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 전공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는 각 5개 전공에 대해 외부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한 정량(定量的)적인 평가와 세계적 석학들에 의해 국내 최초로 정성(定性的)적인 평가로 이뤄진다.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논문 수, 논문인용률, 학부생·교수와의 면담 등을 통해 종합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자연대의 종합 평가 결과는 올해 2학기 중이 발표된다. (후)



좌로부터 李志善·鄭哲圭·金泳勳·李弘熙·韓民九등은

공대 李弘熙교수·金泳勳박사

신양학술상·신진학술상 받아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에 30억 원 상당의 신양학술정보관을 기증하고 10억원의 석학교수 기금을 출연했던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학48-52 권회 회장)이사장이 '신양학술상' 기금을 추가로 출연해 지난 4월 1일 첫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화학생물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쌓은 교수에게 '신양학술상'을 수여하고, 박사과정 중에 우수한 연구결과를 집중한 신진 연구자에게 '신양신진학술상'을 수여했으며 각각 3백만원씩 연구비를 지급했다.

'신양학술상'에는 화학생물공학부 李弘熙(화학62-66)교수, 신양신진학술상에는 화학생물공학부 金泳勳(대학원05학 박사후 과정)

박사가 선정됐다.

李弘熙교수는 저널에 출판된 16편의 논문 대부분이 중요한 학술지에 게재돼 미국 SCI 인용지수용 기간으로 한 Impact Factor의 평균값이 4.2 이상이며, 주로 유기화학 분야의 새로운 분자 합성 방법의 개발과 나노 크기의 형상화를 위한 나노구조에 대한 연구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 IT분야인 디스플레이 분야와 집적회로 제조분야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泳勳박사는 2001년 화학생물공학부 제1기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해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 기간동안 28편의 국제 논문과 10편의 특허를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업적을 남겨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모교 병원

대형병원 평가서 12개 'A' 받아

모교 병원(회장 成相熙)이 국내 대형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4일 전국 대학병원 42곳과 5백 병상 이상 종합병원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해 8~11월 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병동, 영양, 응급, 수술관리체계, 약제 등 1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관리와 병동관리, 전 병원 B등급 이상이었고, 환자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감염관리, 안전관리, 의료정보의 무기력, 영양, 모성과 신생아는 80% 이상이 B등급을 넘었다.

그러나 응급관리, 수술관리체계 항목에선 B등급 이상이 30%에 못 미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모교 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편의, 감염 및 시설 안전관리, 병동, 의과, 의료정보의 무기력, 영양, 검사, 방사선관리, 약제, 중환자 등 12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관리체계에선 C등급을 받았으며 인력관리와 진



옛 대한병원 지리의 모교 병원 시계탑 건물

료체계, 응급 등 5개 항목에선 B등급으로 분류됐다.

최상위 수준의 병원 그룹으로는 A등급이 10개 항목을 넘는 반면 D등급은 하나도 없는 모교 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이화여대 의정부성모병원과 경희대의대 부속병원, 강릉아산병원,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은 9개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정부 지원으로 3년간 PDP 원전 기술을 연구한 결과, 효율성 기술, 고속 어드레스 기술, 신 구동 기술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어 개발된 이번 신기술들은 PDP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후지쓰, 마쓰시다 등의 특허공세를 피할 수 있어 국내 PDP업체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연구센터
PDP 원천 기술 개발

공과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디스플레이연구센터(센터장 黃琪雄)는 지난 4월 3일 PDP TV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온 소비전력 및 부품 수율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방의학 연구원 4명
全美학회 '젊은 과학자상'

모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소속 석·박사 과정 연구원 4명이 지난 4월 16~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하임에서 열린 미국임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이정호(보대원99. 01 박사과정·연한뉴스 사진 전문부터), 김연진(의과97-03 석사과정), 최지영(대우원02중 박사후과정), 李旻武(미생물학92-98 박사과정)씨. 이들의 지도는 柳鍾永(의과72-78)·洪萬善(의학79-85)·姜大憲(의학81-87) 교수기

랐었다.

특히 최지영 동문은 '암 관련 유전자(NOS3)의 다형성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 차이'라는 주

제의 논문으로 올해 4년째 이 상을 받게 됐으며, 李旻武동문도 NOS3 유전자 관련 연구로 3년 연속 이 상을 타게 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암학회는 매년 20명 이상의 전세계 임상 및 기초분야의 암연구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9천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회는 이중 심사를 통해 우수 논문을 저술한 연구원을 골라 수상자에게 상금으로 각각 2천달러를 주고 있다.

柳鍾永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의과학교실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수십 편의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해 온 학문적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복제양 '돌리' 윌머트 박사
黃禹錫교수와 공동연구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포유 동물인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이안 윌머트(Ian Wilmut)박사가 모교를 방문해 강연했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 金正彬·생명과학부 교수)은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 공동으로 윌머트 박사를 초청해 지난 4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한은 윌머트 박사가 수의학과 黃禹錫(수의학72-77)석좌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기를 희망해 성사됐는데, 윌머트 박사는 黃교수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黃교수와 세계적 공동연구를 협력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



전임 趙秉圭총장, 윌머트 박사, 한국과학문화재단 羅善壽이사장, 黃禹錫교수

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발병인인을 규명하고 치료방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2 黃禹錫' 육성 지원
연구비 1백억 조성키로

모교가 '제2의 黃禹錫'박사를 만들기 위해 특정 연구분야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해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모교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연구비 1백억원

분회서 체육기금 전달
아구·럭비·미식축구 지원

분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4월 22일 모교의 자화영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모교 아구·럭비·미식축구부에 각각 5백만 원씩 총 1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담합을 하고 있는 모교 아구부와 미식축구부를 지원해온 분회는 2003년부터 럭비부 지원을 추가해 일반 동맹대와의 교류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했다.

그동안 미식축구부, 아구부, 럭비부는 매년 국내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모교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특히 아구부는 지난 28년만에 첫 승을 거둬 대학 체육발전이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해 열릴 '럭비구 - 동맹대 외의 교류전' 및 '아구부 - 전국구모아대회 출전', '미식축구부 - 부산대 친선 경기' 등에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을 조성해 자연대에 전액 지원키로 했으며 최근 60억원을 1차로 집행했다. 자연대는 자연구의 절반 가량인 31억원을 생명과학부에 배정하고 돌리·화학분야에 20억 원을 배정하는 등 특정 분야에 연구비를 집중 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선도과학자' 25명에 포함된 생명과학부 金빛내리(미생물88-92)교수와 2001년 미국에서 초빙한 물리학부 朴 倫교수 등 세계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교수들이 집중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亨)

동 정

수 상

▲**姜信浩**(의학48-52 동아제약 회장·전경련 회장·변회 고문)=지난 4월 4일 미하엘 가이어 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양국 간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1등 십자공로훈장' 수훈.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한국문인협회 수석 부이사장·한국 종이 접기 협회 회장)=지난 4월 25일 시화집 '이 없는 것들을 생각한다'로 제13회 한려문화가협회상 대상 수상.

▲**李在英**(금융58-62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

▲**郭秀一**(상학59-63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4월 22일 서울 서종로 정보통신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50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사에서 황정 근정훈장 수훈.

▲**南東鎭**(치의59-65 모교 치과교정학교 교수)=지난 4월 23일 서울 송정동 대한치과의사 회관에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005년

학술대상 수상.
▲**田惠子**(국문61-65 경원대 교수)=지난 4월 21일 진명여고 개교 99주년을 맞아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런 진명인'상 수상.

▲**吳 明**(전자64-66 구룡로 과학기술부 장관·변회 투회장)=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21세기 경영인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21세기 경영인대상 수상.

▲**趙武濟**(사대원65-67 前대법원 대법관·동아대 석좌교수)=지난 4월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법률문화재단 제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趙武濟**(대학원70종 정성대 총장)=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申喜贊**(의학68-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 연구원)=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

▲**安圭基**(토목72-7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4월 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수여하는 '4월의 KIST인상' 수

상자에 선정.
▲**趙成泰**(영대원72-74 前안성군수)=지난 3월 28일 서울 역삼동 삼목회관 대강당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서 주최한 제4회 연금생활수기 시상식에서 '특이한 생활'으로 동상 수상.

▲**劉 龍**(공역와려73-77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

▲**文顯宗**(경대원77종 유원리법리사장·생명의 숲 국민운동 공동대표)=지난 4월 8일 산림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 수훈.

▲**趙亮鎭**(AMP 29기 대한항공 회장·한국방위산업 협회 회장)=지난 4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의 정부 종합청사에서 나치킨

마가렛이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 수훈.

▲**金承珪**(SGS 7기 SH공사 사장)=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이 수여하는 관리대상(관리부문) 수상.

▲**姜錫珍**(GLP 1기 CEO관설그룹 회장)=지난 4월 20일 한국전분장영인(CFO)학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국CEO대상(대기업부문) 수상.

인 사

▲**崔清麟**(조소54-58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지난 4월 8일 한국어나문서클럽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李仁子**(가성교육55-59 서경대 석좌교수·건국대 명예교수)=최근 문학시대(2005년 봄호) 제64회 신인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돼 한국문단에 축하받는 시인으로 등단.

▲**李佑宰**(수의57-62 前韓科의원·前수의대병원장)=지난 4월 21일 한국마사회 회장에 선임.

▲**鄭元鎭**(생물교육58-6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지난 3월 26일 서울 연희3동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자연사박물관연구협의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

▲**朴良子**(간호60-64 간호대총장회 부회장)=지난 3월 30일 사단법인 자전적21 여성본부 본부장에 취임.

▲**黃炳茂**(외교60-64 구방대 명예교수)=지난 4월 6일 대통령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宋基中**(국문61-65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구장각 관장)=최근 국어학회 제31회 전국학술대회 기간 중에 열린 평의원의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

▲**朴鍾世**(화학61-66 렘프린터 사장·자연대 동창회장)=지난 3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바이오벤처협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安鐵正**(사학63-70 SHS 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4월 8일 한국민영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金一鎭**(경영64-69 前이화여대 경영부총장·관악회 감사)=지난 4월 29일 회계법인 광장과 선일을 합령해 출범한 다산회계법인 대표에 취임.

▲**曹敏鎭**(의학66-72 경향병원 진료1부장)=지난 4월 4일 경향병원 제11대 원장에 임명.

▲**李元鎭**(외교69-76 한겨레신문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4월 1일 경원대 법정책학전문대학원에 교수에 선임.

▲**李相鎭**(미학69-73 조선일보 이사)=지난 3월 31일 원각조선주

주최와 겸 이사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金惠璇(아학69-73 독려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지난 4월 20일 산골지원부 상하기술소장추원 위장(1급)에 임명.



▲鄭寅億(경재73-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지난 4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



보통신 실무그룹(AIPEC TFI.) 회의에서 위기 2년의 차기회의 의장에 선임.

▲李聖煥(사회교육77졸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지난 3월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정기총



회에서 회장에 선임.

▲林彩靑(법학76 80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지난 4월 18일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韓錫右(의학76-82 경상대 교수)=지난 4월 4일 경상대학병원 제12대 병원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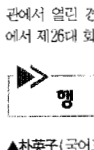
▲權奇成(행정원77-79 세명대 교수)=지난 4월 1일 세명대 국제교육원장에 선임.



▲趙泰玄(대학원79-83 중소기업청 동인전소상 공인지원센터장·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최근 월간 과학

월호 제20회 신인문학상 수필 부문에 당선돼 수필가로 등단.

▲李東俊(AMP 29기·ACAD 31기 코리아폴브 아트밸리지 회장·ACAD 동창회장)=지난 4월 26일 서울 연지동 여전교회



관에서 열린 경동고 동창회 총회에서 제26대 회장에 취임.

▲林英子(국어교육46-50 World Congress of Poets for Poetry Research & Recitation 회장)=최근 미국 뉴욕 Sheraton Laguardia Fast호텔에서 Stanley H. Barkan 개회장



과 김관수 박사에게 신라금관 세 개명화문상 시상.

▲姜仁淑(국문52-56 한국대 명예교수·영인문화원 관장)=지난 4월 9일 서울 광장동 영인문화관에서 문인 초청 제6회 작품



낭독의 개최. 또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192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의 각종 신문에 실린 문화관련 기사를 모아 '문화기사 스크랩' 개최.

▲李亨永(의학52 59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한국공연구원장)=오는 6월 14일



과 21일 한국을 연·원 세미나스에서 '외화본선'

을 주제로 한국문학심리학회 2005년도 봄학기 공개특강 개최.

▲李升煥(행정55-59 한국가스인명 ICT2005조직위원장)=오는 5월 23~25일 부산 BE-XCO에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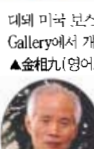
제7차 세계에너지산업정보통신기술회의를 개최.

▲金載任(회화56-60 한국여류화가회 회원)=지난 5월 11~16일 서울 남산도 서관전지실에서 혼혈회 회원인



61·李道守(회화61졸)등문과 함께 제3회 3인의 추상전 개최.

▲金圭石(건축58 64 동국대 명예교수·한국강구조학회장)=지난 3월 10~11일 서울 광장동



에라본워커홀호텔 그린드블룸에서 국제강구조학심포지엄 개최.

▲朴香淑(공방미술58-62 서울여대 교수)=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World Batik Conference Boston 2005 전시회



초대 미국 본소던 The Brush Art Gallery에서 개인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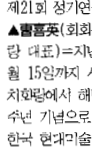
▲金相九(영어교육60-64 부산대 교수)=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손꼽히는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2004년 12월), 영국 국



제인명센터(IFC, 2005년 2월), 미국 인명연구소(ABI, 2005년 3월)에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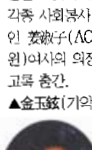
▲李道煥(기학62-66 중대대 교수·웹스트링인상들 음악감독)=

지난 5월 12일 서울 여의도 영안아트홀에서 열린 웹스트링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개최.

▲曹喜英(회화64-68 그로리치회 대표)=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 광장동 그로리치회관에서 열린 60년과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드로잉을 통해 본 한국 현대미술 60년사 1부' 작품



전 개최.

▲金秀哲(보대원65-67 김수철정 형외과외과장·대한에이즈예방 협회 부총장·역시 회장)=최근 각 계 인사와 추사와 개인 화술은



문을 비롯해 신문에 연재한 컬럼, 각종 사회봉사 활동의 인사말, 부인 趙淑子(ACAD 32기 前국회의원)여사의 의정활동 등을 담은 회고록 출간.

▲金玉鉉(기학66-70 한세대 교수)=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영안아트홀에서 열린 '영강과 열정 해바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 연주회에서 바이올린 협연.



▲金一龍(HPM 6기 부산 제일한의원장)=최근



『영원한 스승의 허락 선택』 건강하게 사는 지혜(비 해 품)

를 발간. ☎ 051-332-3235

▲安瑞澤(신대원75졸 경원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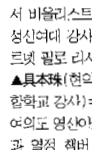
보교수·본보 논설위원)=지난 4월 25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아트사이드에서 '사이공 회화의

표정 컬러로 짜여라'(커뮤니케이션스북스) 출판기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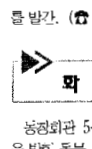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파인

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소년연구소 이사장·판악회 이사)=지난 4월 29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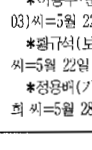


넬호텔에서 클럽총재 47주년 기념 축하회 개최.

▲尹永華(서한84-88 고신대 교수·대진컴퓨터 관장)=지난 4월 1~12일 서울 용문동 갤러리 우면에서 작품전 개최.



▲柳南奎(영학87-91 송남대 강사·마이크로니스트)=지난 5월 8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비올리스트 柳南奎(영학88-92



성신여대 강사)등문 등과 함께 파르테 필로 리사이클 개최.

▲具本珠(현학88-92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영안아트홀에서 열린 '영강과 열정 해바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 연주회에서 바이올린 협연.



▲金一龍(HPM 6기 부산 제일한의원장)=최근

『영원한 스승의 허락 선택』 건강하게 사는 지혜(비 해 품)

를 발간. ☎ 051-332-3235

▲이용우·문화나(수학교육99-03)씨=5월 22일 14시.

▲정규석(보대원98-00)·유수영씨=5월 22일 15시 30분.

▲정용배(기세선서86-90)·김준희씨=5월 28일 16시 30분.

행사

파죽

동원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등반.

*이용우·문화나(수학교육99-03)씨=5월 22일 14시.

*정규석(보대원98-00)·유수영씨=5월 22일 15시 30분.

*정용배(기세선서86-90)·김준희씨=5월 28일 16시 30분.

추억의 창

張泰鉉 (정지50·57) 前浩善산신문 사장

입학 6일후 전쟁 일어나 7년만에 졸업
복학생의 어려움 교수님 배려로 극복

필자는 55년 전인 1950년 6월 19일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그 해의 대학 입학자들은 미국식 가을 신학사에서 종전의 봄 신학기로 학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4도적으로 5월에 고교를 졸업하고 6월에 대학에 진학했다.

그런데 입학한지 6일만인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터졌다. 다음날 26일 월요일 아침, 문리대 캠퍼스 북쪽에 있는 운동장에서 역사학자인 孫得豪학자의 후시를 들으며 전교생이 조회를 가졌다. 그 날 이후 정부가 방송을 통해 인도군에게 잡힌 의정부를 빼앗겼으나 국군이 다시 격퇴시키고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라는 것이었다. 정부를 받고 그 날을 설이 되었다. 그렇게 보내고 다음날 6월 27일 포성이 나기 리고금 주에서 들먹이기 시작했다. 전쟁이 남이 점차 포성은 멈추고 날이 새어 가리니 나가 보니 인공기가 휘날리며 세상이 바뀌고 있었다. 6월 28일 아침 수도 서울은 이렇게 사흘만에 공산 치하에 어이없이 함몰되고 말았었다.



1957년 3월 28일 제11회 졸업식. 원내는 필자.

해방 60년 동안 우리 50년대 대학 입학생만큼 불우했던 적은 없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국군 혹은 좌공군으로 가버렸다. 우리가 바로 6·25세대인 것이다. 3년만에 후진이 되고 서울이 수색됨에 따라 우리는

다시 동송동 캠퍼스에 돌아왔다. 대부분의 동공들이 아르바이트로 입학하지 6~7년 혹은 그 이상 긴 시간을 보내며 어렵사리 학업을 마쳤다. 그러나 보니 전쟁 중에도 부산에서 51년, 52년, 53년에 들어온 우리 입학 후배들이 졸업은 신쾌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했다. 우리 복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채우기 힘들었기에 시험 때마다 시험지 상단에

그 시절 겨울철에 강의실에 난방이 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있고 진지한 교수님들의 강의 모습이 바위에 떠오른다.

후배들과의 국제정치학 수업 시간에 첫 강의를 때마침 세미나 주제의 배당을 못 받고 수강신청이 거부되는 낙담함도 겪었으며, 柳熙烈교수의 한국근세사 시험 때는 한 학생의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자체가 취소돼 다시 치어야 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또 차경수교수의 국제기부 시험 때는 답안지를 영문으로 쓰라고 해 영작문 해라 신문을 뵈어야 있었으며, 韓泰熙교수의 헌법학 시험 때는 국가 권력의 잉여가치를 논하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문제를 받고 형식수설 작문으로 일관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崔柱東교수의 강의시간에는 청라생까지 포함해 교실은 물론 복도까지 초미원을 이루는 대성황이었다.

그 시절 문리대는 이 나라의 학문의 전당이었다고 지성의 상징이었다. 미국 유크대학의 조예인 총장이 언급했듯이 대학은 교수진이 우수하고 사상이 뛰어나야 함은 물론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지하면서 즐거움을 넘치는 진리탐구의 열정과 분위기가 캠퍼스에 넘쳐나야 하는 것이다. 동송동 문리대에는 이런 맥락의 자랑스러운 학풍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리대 부관 장(에)이었던 '대학의 대학'이란 별칭과도 그 시절 우리들의 오만한 지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신간

서예술 소요

—東江 趙守鎭 著



원로 서예가 東江 趙守鎭 編(외화47입 한국국제서법 연맹 회장)등 편지 4월 23일 한국문화재단

프로페셔널에서 인생을 서예와 함께 살아가는 80평생의 체험담을 담은 『書藝術 遺稿』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책에서 한국 현대 서예사의 산 증인이자, 대륙같은 사단의 지도자로서, 한국 서예 국제화의 선봉장으로서 한국 서예사를 이끌어온 趙守鎭의 집념과 서예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과 創新'이라는 과제를 놓고 '진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창신'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계속한 성찰을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쓰고 있다. (서예문인회刊·값28,000원)

HARMONY

—朴英子 편지

World Congress of Poets for Poetry Research & Recitation 朴英子 (국어교육46·50)외화지



이 책에는 수십 개 나라의 대표 시인들의 시 낭송을 통한 정서적 공감대와 인류화해를 위해서 시, 논문, 한·영·러, 저서, 수상 내역 등이 담겨 있다. (도서출판 신세림刊·값\$50)

영화로 보는

인간의 고통

—文國鎮 지음



의학과 비유를 참된 비합리성 관점으로 고통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함께 탐구한다. 고통을 개관화, 수치화된 비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러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잘 표현한 영화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고 인간

에게 고통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예남刊·값16,500원)

출판정보미디어론

—全泳杓 著



이제까지 종이만 외 존재했던 출판산업이 컴퓨터의 등장 이후 전자책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변화하는 출판문화의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全泳杓은 출판정보연구소 全泳杓(언어56-60 신구대 명예교수)이 소장한 그동안 연구했던 논문들을 모아 '출판정보미디어론'을 펴냈다.

全泳杓은 이 책에서 우리 출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간 종이와 개념이러는 지 독자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찾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디어의 정보매체를 극복할 새로운 문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목출판사刊·값18,500원)

죽음과 소년

서울, 한강엔 음악이

호르그

—金宇經 지음

창·성심병원원 치과 과장인 金宇

經(치의학58·63) 동문이 지난 4월 2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서울 시민과 저해 극복을 위한 시민 출판기념회를 열고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병의 전도를 하면서 몸들이 작을 활동을 해온 金宇經은 이번 시집에서 서울의 역사와 비전을 노래하고 있다. 또 각종 재해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에게 위안과 위로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담게刊·값28,000원)

기술과 특허

—李源載·金明漢 共著



한 반사 金明漢(사회61·65) 동문이 다학 교양과장에서 '기술과 특허'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펴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1편에는 기술의 권리와, 특허제도 개요, 특허보호를 위한 국제적·2편에는 발명을 성립시키는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활용 및 발명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을 담았다. 3편에는 특허제도에 대하여 크지 않은, 심사, 특허권, 특허침해,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으로 나뉘고 요점을 기술하고 있다. (도서출판 유인刊·값15,000원)

아나운싱

—강영희·權相鎭 共編



성규권과 서명방송학과 權相鎭(신문81·85) 교수가 교통방송 아나운서인 강영희와 함께 '아나운

싱-디지탈시대 방송 커뮤니케이션'의 개정판을 내놓았다. 아나운서, 기자, 방송, 영키, 스포츠 캐스터 등 디지털시대에 방송 커뮤니케이터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론과 실무 양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아나운싱이 어떻게 수습이나 시험과 관련이 있는지, 기술, 다양한 분야들과 어떤식으로 연계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청목출판사·값25,000원)

동창회를 읽고

바로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삶

“**서울동후배님**, 이 나무이름이 뭐죠?” 대략 숲길 우 직장에서 처음 밟는 봄 산행길. 노랗게 꽃이 피어있는 나무들을 보고 어느 선배사원이 이렇게 물었다.

사슴 산란지원과 직접 연관 있는 1차 순수학문보다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물자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2차 응용학문을 주로 배웠던 필사로서는 이튿날, 산에서 피는 노란색 꽃을 보고 한참만에 떠오른 것이 산수유였다. 확신은 없었지만 산수유라는 답이 머리 속에서 뱅뱅 돌고 있을 때 선배의 한 마디가 나를 더 자극했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인 서울대에서 나무를 전공한 사원인데..”

그 순간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산수유나무입니다”라고 큰소리가 터져 나왔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이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에 노란색 꽃을 피우고 가을에 붉은 열매가 생기는데 이것을 한약 재료로도 사용한다”라는 친절한 낱말까지 잊지 않았다.

“역시...”라며 나를 바라보는 믿음직한 시선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가장 불안한 봄날의 산행을 감성해 갔었다. 그 날 산을 내려오면서 꽃을 슬쩍 꺾어 배낭에 넣고 온 나는, 집에 와서 펼쳐 본 순수학도감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나무는 산수유나무가 아니고 생강나무였던 것이다. 둘 다 잎이 돋기 전에 노란색 꽃이 피며, 피는 시기가 비슷해 생강나무와 혼동했던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나에게 무슨 나무인지 물어온 그 선배에게 진실은 말해줄지 못했지만, 나는 그 날부터 수목학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작했고, 그 후 틈틈이 도감을 들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심진을 통해 스스로 자문자답했다.

그때 필자가 다녔던 회사의 사촌이 ‘바로 알고 바로 살며 서로 도와 하나되자’였다. 우리가 살면서 바로 알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전장을 건너나 관연된 분야에 있어서 부지는 죄악처럼 느



朴 淵 聲

(임산82-89)

퍼시스 분당점시장 대표

려졌다.

이제는 10여 년 내내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며,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산행에서 나무에 대해 몰으며 한참히 나무는 무슨 기능해주고 약간의 부수적인 설명도 곁들여준다. 소고처럼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신뢰하는 서울대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바로 알기를 실천한 내가 자랑스럽다.

오늘도 벌써 노란 꽃이 지고 잎이 나와버린 사무실 창 밖의 산수유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때 생강나무라고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절로 웃음이 나온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멘토’역할 하는 선후배 많았으면

어제된 영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해진 바리 때문인지 졸업 후 처음으로 몇 달 전부터 동창회보를 받아 보게 됐다. 회보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회력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아니라면(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필상



趙 貞 淑

(서문84-89)

뉴욕생명보험 IT 본부장

만드는 문화가 부러웠고, 지금도 그동안의 공동체의식이 부럽다 못해 중무심을 넘어 열등의식마저 갖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부러움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왜 우리 서울대인애겐 그러한 선후배·공동체 의식이 없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보기도 한다. 동문들에게 혼술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서울대인에게도 혼자서도 잘 헤쳐나가는 듯한(?) 자존심과 오만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어 서울대인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아홉살고 막연한 결론을 내려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이거니와 강력한 회향하면서 우리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순위를 말한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제안은 우리 선후배 동문들에게 드리고 싶다.

첫째, 조직이 몰락하고 있는 동문들에서는 특히 우리의 여러 후배 동문들이 조직에 적응하기 힘들어 할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은지, 어떻게 이 과파한 세상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mentor’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그들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후배 동문들은 상하간의 ‘mentor’가 필요할 때 용감하게 선배님들을 찾아갈 도움을 청해 보자. 둘째는, 소속감·공동체 의식·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심에 동창회가 있을 때고, 그 중요한 수단으로서 동창회 보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이

시엔 서울대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회보를 받아면서부터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그 불구하고, 내가 서울대 동문이라는’라는 생각을 경시나마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창회보는 필자에게 서울대인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매체인 것이다.

회사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고려대나 연세대 출신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던 것 같다. 문화를 전공하고도 전혀 생소한 IT분야에 사회의 첫발을 내딛으며 꼭 이나 파란만장 길을 걸어야했던 필자로선 끈끈한 유대감으로 후배들을 챙겨주고 싶었던 점을 ‘우정해주’도 하며, 연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의견을 한번 내놓고 싶다. 후배의 연락이 되는 동문들에게 동창회보 납부를 권유하고 동창회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2005년 5월이 되었으면 한다고.

